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청년강국 주인공들의 총정의 선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완공된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1 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백두산영웅청년1호발전소 인제가 일떠선 결과 백두대지에 대인공 호수가 생겨났다고 하시면서 호수의 이름을 <백두영웅정변호>로 명명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이 우리 나라 수력발전소건설력사상 가장 불리한 자연지리적조건을 극복해야 하는 엄혹한 난관과 시련속에서도 새로운 기술혁신안들과 합리적인 건설공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겨울철에는 수력발전소건설을 할수 없었던 기존 건설공법에 중지부를 찍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1년동안에 백두산영웅청년1호, 2호, 3호발전소를 일떠세움으로써 당의 부름이라면 돌볼을 가리지 않는 조선청년들의 불굴의 정신력과 무궁무진한 힘을 만천하에 다시금 과시하였으며 우리 당의 손길아래 억세어진 영웅청년들의 자력자강의 무지주먹이 반공화국제제압살책동에 때달려 피눈이 되어 날뛰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정수리를 호되게 후려쳤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는 혁명적군인정신과 강계정신이 창조되었다면 오늘날의 어려운 시기에는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이



창조되었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창당 첫 시기부터 장기성을 띠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청년들을 당의 후비대, 척후대, 익측부대로 키운 위대한 수령님들과 우리 당의 령도가 얼마나 정당한가를 용변으로 실증해준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완공을 통하여 당의 결심은 곧 현실이고 실천이며 조선청년들은 당의 결심을 관철하는 데서 선봉대의 역할을 다해가고있으며 그들의 힘이 정말 강하다는것을 다시금 증명하였다고 하시면서 모두 만나고

싶은 심정을 금할수 없다고, 그들에게 수고들이 많았으며 건강하기 바란다. 자신의 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건설과정에 우리 청년들이 당의 후비대, 척후대, 익측

부대로서의 기상과 본태를 남김없이 보여주었다면 우리 로동계급도 철야전투를 벌려 발전기를 비롯한 방대한 대상설비생산과 조립공사를 앞당겨 끝범으로써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사명과 본분을 다했다고 하시면서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전체 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와 라남관광기계련합기업소, 수력설비조립사업소를 비롯한 련관부분 공장, 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에게 조선로동당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 준공식을 성대히 진행하여 조선청년들의 불굴의 정신력과 기상을 만천하에 힘있게 과시하자고 하시면서 준공과 관련한 지시와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가 새로 수행하여야 할 전투 임무를 현지에서 직접 주시였다.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준비사업으로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완공된 발전소에 찾아오시여 한없는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에 대한 고마움에 걱정을 금치 못하면서 청년강국의 주인공답게 조국을 떠맡드는 억센 기동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하며 강성국가건설의 전구물마다에서 기적의 창조자, 청년영웅이 될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정보반

